

35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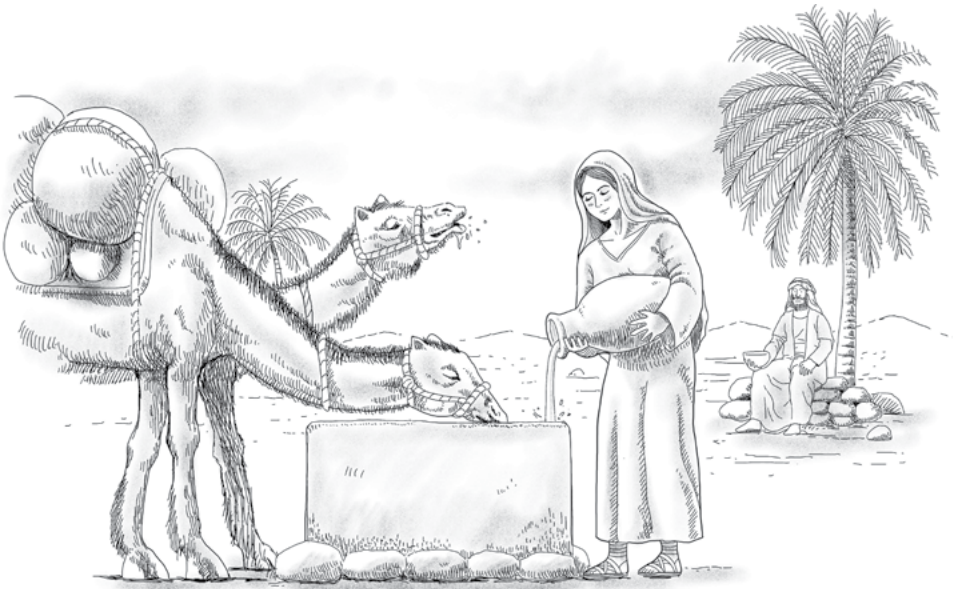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창 24장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양 94장 (주의 사랑으로)



1.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압니다.
2.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창 24:3~6)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 24:7)

The LORD God of heaven, who took me from my father's house and from the land of my family, and who spoke to me and swore to me, saying,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He will send His angel before you, and you shall take a wife for my son from there. (Gn 24:7)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이삭의 신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 중에서는 신부를 선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 적어봅시다(신 7:1~4, 고후 6:14~16).

- 2 구약시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신약시대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빈칸들을 채워봅시다(요 14:26, 고후 11:2, 엡 1:3~6, 살전 5:23).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아브라함	하나님
종	
이삭	
리브가	

- 3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의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예를 3가지 찾아 적어 봅시다(민 25:1~9, 삿 16:4~31, 왕상 11:1~13).

- 4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이성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형제·자매간의 교제가 바람직합니다(고후 6:14~16, 살전 5:23, 계 19:7).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 학창시절에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24: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요 14:2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고후 6:1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고후 6:15

↓

고후 11:2

↓

살전 5:23

↓

계 19:7



루터의 아내

루터(독일의 종교 개혁자)는 교황의 종교정책에 반대하여 1517년 비텐베르크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부착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황청의 강력한 도전과 위협을 받으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수심에 잠겨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아무 말없이 검은 상복차림을 하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복차림의 아내를 본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었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루터는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답지 못하게 이렇게 실의에 빠져 있을 수 있나요?”

아내의 질책을 받은 루터는 용기를 얻어 열심히 활동하여 마침내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9~12)



질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담이 따먹을 걸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그리고 함께 영광을 누릴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표로 한 가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단순한 언약을 지키지 않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야만 했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야만 했으며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아담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으며,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도록 한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마귀의 편에 설 것을 미리부터 아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답후 1:9, 벤전 1:19~20).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손은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람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을 약속합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와 약속한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세상을 좇은 의인 롯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했던 롯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롯은 소돔의 죄악된 생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자기 족속 가운데서 신부를 구합니다. 이 신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